



공유경제의 성장과 보험의 역할

이규성 연구원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인구 20% 이상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향후에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공유경제 성장과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공유경제 공급자의 상당수가 기존 개인 보험상품에서 담보 범위를 늘려 가입하는 형태 외에는 공유경제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공유경제에 맞는 보험상품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주요 6개국 성인인구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¹⁾에 따르면, 성인인구 20% 이상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향후에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²⁾
 - 성인인구의 42.5%가 최근 3년간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성인인구의 30%가 공급자로 공유경제에 참여하였음
 - 향후 공급자로서 공유경제 참여 의향은 성인인구의 40%인데, 도시거주자와 젊은층의 참여를 중심으로 공유경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경제 성장과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공유경제를 영위하면서 공급자는 재산에 대한 손괴 가능성, 수요자에게는 공급자의 거래 불이행 가능성, 플랫폼 서비스 업자에게는 사이버위험과 고객과의 분쟁에 대한 중재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표 1〉 참조)
 - 특히 공유서비스를 전업으로 하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보험서비스 수요가 있음
 - 공유서비스를 전업으로 하는 공급자와 전업이 아닌 공급자의 보험가입률 차이는 2배 정도임

1) Lloyd's - Deloitte(2018), "Squaring risk in the sharing age", 설문대상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UAE)
 2) 한국 공유경제 규모는 GDP의 0.005%(2017. 5월 기준, 한국은행)이며, 2020년 중국의 공유경제 규모는 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중국 정부,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서』)

〈표 1〉 사업 리스크별 공유경제서비스 구분

부문	부문별			공통	
서비스	배달서비스	카셰어링 / 카풀	프리랜서	고객과 갈등 문제	해킹 및 사이버 위험
부동산	숙박공유 / 주차공유				
금융	P2P 대출				

자료: Lloyd's - Deloitte(2018), "Squaring risk in the sharing age"

■ 공유경제 공급자의 상당수가 기존 개인 보험상품에서 담보 범위를 늘려 가입하는 형태 외에는 공유경제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이 공급되지 않음

- 공유경제 공급자의 상당수가 기존 개인 보험상품에서 담보 범위를 확대 가입함
 - 숙박공유업자와 배달종사자의 37%는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프리랜서의 25%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
- 공유경제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공유경제 형태에 부합한 보험상품이 적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가 대부분임
 - 공유경제 공급자의 57%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거래상대방 위험 등)를 이용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범위를 확대함

■ 보험회사는 공유경제에 맞는 보험상품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유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장 담보범위 확대 및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숙박 및 공간 공유서비스 과정에서의 거래위험 및 재물보상 뿐만 아니라 '게스트'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프리랜서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약 20% 미만임을 감안하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접근 가능성 높일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업자에게는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과 고객 간 혹은 고객과 분쟁에 대한 대위권 약관 조항이나 플랫폼 도산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목적의 보증보험이 필요함
- 또한 공유경제 전업 공급자에 연금 및 건강 보험 등 개인보험에 대한 판매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공유경제 공급자의 56%가 전업이며, 개인보험의 가입률이 평균 20%로 평균 가입자 대비 가입률이 저조함 **kiri**